



日, 무공해 포장필름 개발
옥수수 당분 주원료

일본 아사히카세이(旭化成)는 지난 달 16일, 사용 후 폐기해도 흙이나 수중에서 분해돼 자연으로 환원되는 성질을 지닌 생분해성 식품 포장용 랩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옥수수에 함유돼 있는 당분을 주원료로 제조하기 때문에 현재의 석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식품포장필름에 비해 지극히 환경친화적이다.

2005년에 동상품을 양산하기 위해 양산설비를 건설해 환경의식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고, 일본 국내시판도 시장동향을 살핀 후 판매할 계획이다.

생분해성(生分解性)이란, 흙이나 수중에 생식하는 자연계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최종적으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성질을 가리킨다.

석유를 원료로 정제되는 일반 플라스틱류는 흙에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생분해성이라면 분해돼 토양으로 환원된다.

현재의 일반식품포장용 랩필름의 원료는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폴리염화비닐딘으로 제조된다.

이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제품처럼 불연성(不燃性)쓰레기로 분류폐기되고 있으나, 동제품은 개발명이 「EFW」로 식품포장용 랩필름 제조판



매회사인 아사히카세이 라이프 앤 리빙이 개발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 제품은 옥수수당분에서 추출되는 폴리유산이라는 생분해성물질을 주원료로 하며, 폴리유산에 연화제 등을 배합하는 독자적기술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폴리유산을 얇은 필름화해도 유연성이나 밀착성이 유지되므로 거의 실용화단계에 있고, 2005년도에 양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장설비투자액이 수십억엔에 이를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가격은 폭 30cm, 길이 20m의 표준형으로 기존 식품포장용 랩필름보다 40% 정도 고가로 판매될 전망이다.

최근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부층에서도 환경배려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어 비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동제품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 하락세 대형 정유화학공장 생산 재개

베트남 플라스틱협회(Vietnam Plastics Association)는 메이저 정유화학공장들이 생산을 재개하면서 세계시장의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2~4% 정도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플라스틱협회의 Nguyen Dang Cuong 회장은 지난 달 2일 기준으로 10일 전에 비해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20~40% 떨어졌

으며 품목별로는 폴리프로필렌이 톤당 8백80달러, PVC가 톤당 8백70~8백90달러, PELD(저밀도폴리에틸렌)가 톤당 8백80~8백90달러, PEHD(고밀도 폴리에틸렌)가 톤당 8백90~9백20달러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끄영 회장은 “지난해 말 기술적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의 대형 정유화학공장들이 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플라스틱 원자재 공급부족 및 가격인상이 촉발됐다”며 이들 공장이 며칠전부터 생산을 재개하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반전했으며 이런 추세가 몇개월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플라스틱 완제품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고가로 구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을 출하중인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들은 지난주 제품가격을 5~10% 정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다.

호치민시 소재 Binh Minh Plastic Joint Stock Company는 PVC 튜브의 소비자가격을 5% 인상함으로써 연초 대비 총 15%의 가격상승을 나타냈다.

이외에 주요 제조업체인 Cho Lon, Sai Gon, Phat Thanh사 등도 가격을 5~7% 인상했으며 북부지역의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Duy Thanh사도 가격을 5% 인상했다.

한편 베트남 플라스틱협회는 지난 2월초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라 플라스틱 원자재 수입관세를 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日, 총액표시제 농산물 판매업계 슬렁 납품가격인하입력, 포장단위조정

이번 달부터 소비세 총액 표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판매업체들의 경우에도 가격표시를 둘러싸고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종래 98엔, 1백98엔 등 1백엔 단위를 밑도는 가격을 붙여놓고 실제로 대금을 징수할 때는 소비세를 붙여서 징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싼 것처럼 어필하는 효과를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래 1백98엔의 가격대를 붙여놓았던 상품은 이번달 부터는 2백7엔으로 가격표를 바꾸어 달아야 한다. 1백엔대가 아니라 2백엔대 상품이 되어버리기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크게 인상된 것처럼 비쳐질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매업체는 이미 납품하고 있는 납품선에 대해 소비세분만큼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독점 금지법 및 하청 법 위반이기때문에 이 대안도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또다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포장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즉 미니토마토나 밀감 등의 경우 종래의 포장량을 줄여서 종래대로의 가격표를 그대로 붙이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이같은 방법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에 총액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표면에 내걸고 자체 흡수하려는 기업들도 적지 않을 전

망이다.

이토요카도 청과부는 품목에 따라서는 소비세 분 상승분을 가격표시에 그대로 표시하는 품목, 그리고 자체 마진을 줄여서라도 종전의 표시가격을 그대로 표시하는 품목 등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데 종전 표시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품목은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산지나 가공메이커 등의 경우 원료 구입시 소비세만큼의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데 도후쿠 농협은 경우도미 가격을 3천엔이 넘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포함해서 2천9백80엔에 납품토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다.

이같이 가공메이커 등이 원료로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아니라 일종의 생산세 성격인데 중간 도매상이나 도매상이 소매업자들의 요구에 적응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관동지방의 츠키모노 제조메이커는 슈퍼 각사들이 금년 2월까지만 해도 가격의 실질적인 인하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3월 들어와서는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는 귀뜸이다. 세전가격 1백98엔의 종래 상품은 세포함 가격으로 2백7엔에 판매하겠다는 슈퍼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나 4월 이후 실제 가격표시가 총액 베이스로 바뀔 경우 판매가 부진을 보인다면 5월부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구실로 납품가격 인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슈퍼에 따라서는 종래 M사이즈



에 1백98엔을 붙여서 팔던 것을 5월부터는 S 사이즈, 즉 가장 적은 사이즈에 1백98엔을 표시하는 방안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은 뻔하다. 현재 일본의 점두 가격표시가 총액 베이스로 바뀌게 되면 초기적으로 이같은 혼란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美 FDA, 식품포장 '저칼로리' 표시 금지
차세대 체중 감량 기법 개발 독려**

미 식품의약국(FDA)은 식품포장의 영양표시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비만방지 운동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FDA가 모든 식품 포장에 보다 명시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각 음식이 하루 칼로리 권장량의 몇 퍼센트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FDA관리들은 이밖에도 식품 포장에 '저칼로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번에 판매되는 식품이 몇회 식사분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들은 또 각 식당에서 메뉴판에 판매하는 음식의 영양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FDA 차원에서 차세대 체중 감량 기법을 개발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미 G 톰슨 보건복지부 장관은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글자 그대로 죽도록 먹는다", "비만이 전염병처럼 번지며 미국인 수백만명의 목숨

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톰슨 장관은 "많은 소비자들이 칼로리를 세는 것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결코 체중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FDA의 레스터 M 트로포드 부위원은 "비만은 오늘날 미국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과체중이 되거나 비만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나 외식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같은 비만방지 움직임에 찬성하면서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소비자 운동가나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조치가 자발적인 행동에 너무 크게 기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소비자단체인 '공공이익을 위한 과학센터(CSPI)'의 마이클 F. 제이콥슨은 "정크푸드를 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 규약에 기대는 것은 안일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가 '수퍼사이즈' 메뉴를 없애는 등 몇몇 기업들이 이미 자발적인 조치에 나섰다며 이같은 우려를 거둬달라고 주문했다.

톰슨 장관은 "이런 경우는 자발적 준수가 훨씬 낫다고 믿고 있다"며 "만약 제대로 되지 않다면 다시 보다 강력한 감시 조치와 함께 보다 혹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비만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